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정권교체’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는 ‘진짜 정권교체’를 할 것인가, ‘가짜 정권교체’를 할 것인가를 가려내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정권교체는 대통령 1인의 교체가 아닌 주도세력과 시대정신의 교체여야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통한 정권교체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보수정권의 연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패 기득권층과 국정농단의 공범 구 새누리당 세력의 이른바 ‘반문정서’에 기댄 표로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은 불가능합니다. 청산의 대상들이 개혁과 적폐청산, 경제 활성화 등을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안 후보측이 주장하는 ‘양강구도’ 대결은 현 시대정신이 정권교체임을 가리기 위한 기만술에 불과합니다.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진짜 정권교체, 누가 해낼 수 있습니까? 선택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패와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시스템과 결별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진짜 정권교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이 해내겠습니다.

사진 | 문재인 후보가 대선후보 경선 승리 후 첫 공식 방문지로 광주-전남을 선택,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인 광양제철소를 방문, 근로자를 격려하고 있다.

문재인 제19대 대선 후보 확정

전체 득표율 57%... 호남에서 60.2% 압도적 지지 받아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3일 마지막으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순회경선에서 승리를 거두며 누적 합산 과반으로 결선투표 없이 우리 당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최종후보로 확정됐다.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마지막 당내 경선인 수도권·강원·제주 순회경선에서 문 전 대표는 과반을 훌쩍 넘는 득표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꺾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됐다.

수도권 순회 경선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는 60.4%를 얻어 이재명 시장(22.0%), 안희정 지사(17.3%)를 크게 앞질렀다.

51만여명이 선거인단으로 신청한 2차 ARS 투표에서는 48.8%에 머물며, 전체 누적 득표율은 57%를 기록했다. 투표에 참여한 164만여 명 중 93만6419명은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린 수도권에서 막판 대역전을 기대했

지만 문 전 대표의 과반 득표를 지지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문 전 대표는 앞서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경선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문 전 대표는 호남에서 60.2%라는 높은 득표율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안희정 후보의 텃밭인 충청에서도 48.7% 득표율로 안 후보(36.7%)를 꺾고 1위에 올랐다. 영남에서의 득표율은 64.7%로 더 높아졌다. 누적 득표율 59%였다.

문 후보는 수도권에서 영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ARS 득표율이 48.8%에 머물며 전체 득표율은 57%를 기록했다.

이로써 문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 이어 5년 만에 다시 19대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됐다.



4·12 재·보선, 강형구 순천시의회 후보 승리

해남과 여수·순천 등 3곳에서 치러진 4·12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순천 나선거구 강형구 후보(54·전 순천시의원)가 승리했다.

〈당선 인터뷰 8면〉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 후보는 총 유효투표 5676표 가운데 1782표(31.39%)를 획득해 1532표(26.99%)를 얻은 국민의당 김호준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무소속 이명옥, 최진도 후보는 각각 1314표와 1048표를 얻었다.

강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4·12 재·보선에서 승리한 것은

진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뿐이었는데 지역민께서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평가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2선거구 양재승(59) 도의원 후보와 여수나선거구 김승호(53) 시의원 후보는 석패했다.

한편 전남 3곳을 비롯 전국 30곳

에서 치러진 이번 재·보선 투표율은 해남 45.5%, 여수 33.4%, 순천 50.9%로 전국 투표율 32.7%을 상회했다.

성명

경선, 높은 참여열기 부응하여 반드시 정권교체 이루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권 순회경선에 호남 지역민 38만 여명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정권교체를 열망하며 정통 민주정부를 염원하는 광주와 전남·북 지역민들의 뜨거운 열정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호남지역민들께 감사드린다.

27일(월) 오후 2시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순회경선은 전국 4개 권역 중 첫 번째로 치러진다. 이날 경선은 후보자 정견발표와 광주, 전남, 전북의 전국대의원 투표, 개표결과 발표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6시 40분경 발표될 예정인 호남권 경선 결과는 22일 치러진 전국투표소 투표 결과와 25~26일 진행된 ARS투표 결과, 27일 순회경선 대의원 투표 결과를 모두 공개하며 호남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권 순회경선에서는 경선후보 4인의 연설을 통해 호남 발전의 청사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호남 3개 시도당은 사도민의 높은 경선 참여 열기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당을 통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갈 첫걸음이 될 광주 순회경선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7. 3. 26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전라남도당, 전라북도당



문재인 후보 지역발전 공약 - "광주·전남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3월 20일 오전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광주·전남 비전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문 후보의 광주·전남 비전 가운데 광주·전남 공동공약 및 전남비전 전문.

“ 인사탕평, 일자리 혁명으로 호남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호남의 자부심을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만들겠습니다

“광주·전남의 자부심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호남의 성공을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만들겠습니다.”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만드는 '재조산하'(再造山河)의 심정으로, '약무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는 절박함으로 광주에 다시 왔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광주항쟁은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되었고 두 번의 민주정부를 만든 것도 호남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광주의 자부심을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만들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단연코 정권교체입니다. 광주 전남이 중심이 되어주시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호남의 정권교체 열망에 보답하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문재인으로 정권을 교체해 주십시오. 두 번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호남의 마음이 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나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헌법 전문에 기록될 것이며 발표명령자 등 아직도 은폐된 진상은 철저히 규명될 것입니다.

〈5.18 관련자료 폐기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편협하는 어떤 시도도 원천 금지될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호남의 인재가 마음껏 일하는 나라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은 호남세대 9년이었습니다.

호남인재가 차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등용된 비율은 인구 비율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힘이 센 권력기관은 더욱 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호남인재가 4대 권력기관 요직에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다시피 했습니다. 인사차별은 국민통합을 막는 적폐입니다.

호남출신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당하고 차별받은 인사부터 챙기고 구제하겠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호남차별은 없습니다. 호남은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우뚝 설 것입니다.

호남의 성공을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만들겠습니다. 저 문재인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전남에서부터 일자리혁명에 성공하겠습니다. 광주전남 일자리를 직접 챙기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경제를 정상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로 지방분권의 길을 연 김대중 대통령,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한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하는 길입니다.

광주전남은 충분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의 지원입니다.

인구 10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던 나주가 광주전남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느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참여정부 혁신도시의 성공모델 나주가 국가 지원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이 다시 시동을 걸겠습니다. 3기 민주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을 완성하고, 광주, 전남의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정책으로 일자리가 흐르고 돈이 돌게 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발전의 핵심은 상생비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눈으로 보여주고 일자리로 돌려주는, 혁신성장의 상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혁신적인 산업기반 위에 가장 안정적인 일자리, 향후 30년을 선도할 새로운 일자리를 광주와 전남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5월 광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되었던 일자리 나눔과 사회통합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전국으로 뻗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광주정신을 빛내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하면 정치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상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약속합니다

광주에 전남을 더하고, 전남에 광주를 보태는 상생전략을 실현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을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광주, 함평의 빛그린산단에서 만든 전기자동차와 광주, 나주의 빛가람 에너지밸리에서 생산한 배터리가 결합될 것입니다.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가 광주나주 혁신도시와 연계되어 성장할 것입니다.

2020년까지 500개의 에너지 관련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이 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남에 약속합니다

첫째, 전남을 농생명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전남이 첨단 스마트 팜과 수산양식산업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서남해안에 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해 풍부한 문화자원과 청정한 자연환경이 경제의 활력이 되게 할 것입니다.

셋째, 기반시설을 확충해 광양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쌀값 하락으로 시름이 깊은 농부의 손은 정부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쌀값을 제대로 인상하겠습니다.

저 문재인은 거제에서 태어났지만, 정치

적 삶은 이십대 청년시절부터 광주와 함께였습니다. 그래서 호남호대라는 질타가 가장 아팠습니다.

오해된 내용도 설명 드리고, 많은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호남에 대한 저의 존경과 애정보다 정권교체에 대한 호남의 열망이 더욱 깊고 절박했습니다.

성공한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고 높았습니다.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정권교체와 인사탕평, 일자리혁명으로 호남의 울분을 풀어드리고 호남의 삶을 바꾸는데 성공하겠습니다.

호남의 자부심을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호남의 성공을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이 걸어 온 길

1. 유년기와 청소년 시절

자유와 땅, 그러나 숙명과 같은 가난

1953년 1월 24일, 경남 거제군 명진리 허름한 시골 농가에서 태어났다. 한국전쟁을 피해 남으로 자유를 찾아 온 부모님이 처음 정착한 곳이었다. 1.4 후퇴 흉남철수 작전 당시, 서둘러 떠나온 피난길이 한평생 실향(失郷)의 한으로 이어졌다. 이후 피난민이 많이 살던 부산 영도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아버지는 이곳저곳으로 장사를 나서면 집안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는 연탄을 배달했다. 그는 자서전 <운명>에서 어린 시절의 가난에 대해 “자립심과 독립심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돈’이라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지금의 내 가치관은 오히려 가난 때문에 자리 잡은 것이다”고 회고했다.

경남중 시절에는 태어나 처음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주는 세상의 불공평함을 깨달았고, 독서에 빠져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경남고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지만 모범생과는 거리가 멀어 친구들과 의리를 지키려다 싸움을 벌여 정학을 당하기도 했다.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 상대에 응시했으나 낙방하고 재수 끝에 경희대 법학과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2. 대학 및 청년시절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1972년 박정희 정권은 유신 선포와 함께 민주주의의 억압을 노골화했다. 1973년 유신반대 대학생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유신정권은 1974년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이라는 대규모 공안사건을 조작했다. 이 때 학내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어 구류처분을 받고 풀려났으나 이듬해 4월, 다시 대규모 학내시위 주도 혐의로 끝내 구속되고 만다. 그리고 1975년 석방되자마자 강제징집 당해 제1공수 특전여단에 배치된다.

1978년 2월, 만기 제대 후 갑자기 아버지가 사망하자 장남으로 집안을 건사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사법고시의 길로 들어섰다. 49재를 마친 다음날 해남 대흥사로 들어가 공부에 매진한 끝에 1979년 1차에 합격했다. 다음해 2차 공부에 정진하던 중 10·16부마항쟁과 10·26 사건이 터져 시대는 격랑에 휩싸였다.

1980년 4월 ‘서울의 봄’ 한 가운데에서 학내시위 와중에 2차 시험을 치렀다. 5·17 확대 계엄 조치로 구속됐으나 유치장에서 2차 사법시험 합격 통지를 받는다.

3. 인권 변호사와 참여정부 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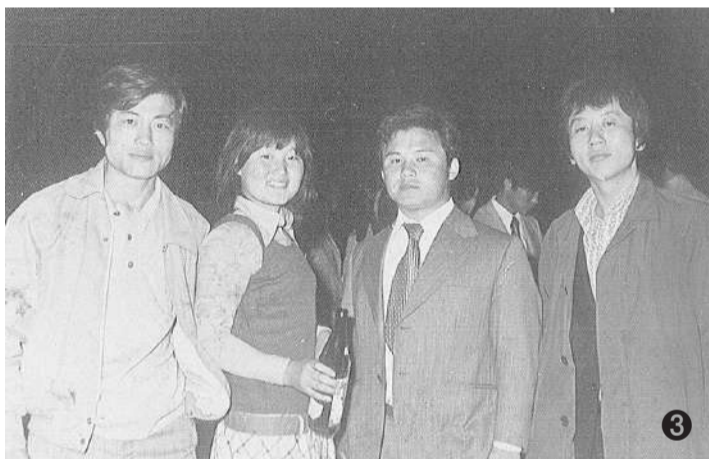
노무현과 운명적 만남

사법연수원 시절은 평탄했다. 이 무렵 7년간 연애했던 대학 후배 김정숙과 결혼했다. 작고한 조영래 변호사, 박원순 서울시장, 박시환 대법관, 이귀남 법무장관, 조배숙 의원, 박은수, 고승덕 전의원 등 쟁쟁한 동기들 속에서 차석으로 졸업했다.

판사를 지망했으나 시위전력으로 임용에서 탈락되자 고향 부산에서 변호사의 길을 걸었고, 노무현 변호사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다. 부산-경남 민변을 창립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부산 NCC 인권위원을 맡았다.

참여정부가 시작되면서 민정수석 2차레와 시민사회 수석을 거쳐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재임했다. 이 시절 격무에 시달리다 과로로 인해 무려 10개의 이가 빠지기도 했다.

민정수석을 사퇴하고 훌쩍 히말라야로 트래킹을 떠났으나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태로 곧장 귀국하여 법적 대응 전반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탄핵 재판이 끝나자 다시 시민사회수석으로 복귀하여 2005년 1월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긴다. 2007년 3월, 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



①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②대학시절 친구들과 ③청년시절 문재인과 김정숙 여사 ④2012년부산사상구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실장’이 되어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맡아 회담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킨다.

4.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정치 입문

운명의 시작

임기를 함께 마치고 양산 시골집으로 돌아왔으나 세상은 그를 내버려두지 않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정권이 흔들린 이명박 정권은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을 시작했다. 2009년 4월 30일 ‘치욕스런’ 검찰 수사를 마친 노 대통령은 “내 자신만 정치적으로 단련되었지 가족들을 정치적으로 단련시키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서거 후 상속신고를 하고 보니 부채가 자산보다 4억 원 가

량 더 많았다.”

정치보복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끝났다. 노 대통령의 장례 과정에서 상주 문재인은 놀라운 절제력과 의연함으로 국민에게 각인되었다.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과 불의에 무너지는 정의를 바라보는 상실감은 그를 정치에 발을 내 디디게 만들었다.

●대선도전

2012년 4월 부산 사상구에서 총선에 출마해 승리한 그는 두 달 후 18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100만 국민이 참여한 민주당 국민경선에서 13번 모두 1등을 차지하며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이후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8대 대선 결과, 득표수 1,469만표, 득표율 48.02%로 아쉽게 정권교체에 실패한다. 그가 득표한 1400여만표, 득표율 48%는 야권 대선후보 역대 최고의 득표수, 득표율이었다.

●주요 프로필

[학력 사항]
~1971 경남중·고교
~1980 경희대 법학과(학사)

[주요 경력]
1980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1984 한국해양대 해사법학과 강사
1985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
1988 한겨레신문 창간위원
1989~2002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부이사장
1995~2003 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
199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산지부, 경남지부 대표
1995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1996 부산YMCA 이사
2001~2002 노동자를 위한 연대 공동대표
2003~2005. 01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비서관
2005. 01~2006. 05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007. 03~2008. 02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2007. 08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장
2009. 09~2010.08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상임이사, 이사장
2011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
2012. 05~2016. 05 제19대 국회의원
2012. 05~2013. 05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2015. 02~2015. 12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2015. 12~2016. 01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인재영입위원장
2016. 01~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제19대 대선 전남 정책공약 토론회 진행을 맡은 양승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상필 선임 연구위원, 장중익 사무국장, 우승희 도의원, 송경환 교수, 양승주 교수, 서삼석 위원장, 김영미 교수, 고두갑 교수.

지상중계 - 전남 정책공약 대토론회 토론 요지

송경환(순천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전남의 농업 종사인구에 비해 대선 후보들의 농업 공약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크게 두 가지 분야의 공약을 제안한다.

첫 번째 농어업 분야 정책과제로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어촌 공동화와 농업소득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 도시가구 소득에 비해 61%에 불과한 농업소득은 생산 측면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보완돼야 한다. GDP의 2.1%에 불과한 농업총소득도 마찬가지다.

둘째로는 스마트팜 단지 조성, 원예종묘 국제품질인증 기반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첨단 ICT 융복합 농업 단지 조성이다. 세부 공약으로는 2~3천억 규모의 농식품 ICT밸리 조성을 건의드린다. 전국 유일의 순천대 농식품 특성화대학의 연구센터와 ICT 밸리를 활성화하여 첨단유리온실의 수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또 한류 확산 추세에 맞춰 할랄농식품 인증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처 다변화와 농식품 가공제조업 수출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원예종묘 국제품질인증센터를 설립해 빼앗긴 종자산업의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장중익(여수산단협의회 사무국장)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메카인 여수산단이 위치한 전남 동부권 활성화 공약을 제안한다.

첫째, 국내선만 취항하는 여수공항에 외국인 관광객과 바이어 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부정기 노선의 취항허가가 시급하다. 둘째, 1만여명의 희생자를 낸 여수사건의 진상규명이다. 아직도 군경과 민간인이 따로 추모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여수순천 지역민의 명예회복을 새로운 정부가 반드시 해주기 바란다. 셋째, 여수산단과 광양지역에서 내는 국제만 수조원대에 이르고 있으나 산단 인근 주민들은 공해로 건강상, 재산상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산단 인근 주민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올해로 여수산단 조성 50년이 됐다. 산단 희생자 추모탑 건립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이 반드시 나와주기 바란다.

김영미(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미래의 전남인은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미래인구 유입책이 가장 시급한 전남의 대선 공약이 되어야

‘미래의 전남인은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미래인구 유입책이 가장 시급한 전남의 대선 공약이 되어야 한다. - 김영미 교수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한 다양한 정책공약이 제시되어야 한다. - 우승희 도의원

한다.

전남은 관광산업을 미래 선도산업의 중심축으로 육성하여 변화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4가지 정책공약을 건의드린다.

첫째, 동북아 해양수산·관광산업 국제선도지구 지정이다.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사례처럼 야간 사파리를 비롯한 다양한 휴양체험 시설을 갖춘 국제관광단지 개발을 통해 전남 서부권 도서지역을 힐링관광의 중심지로 개발해야 한다.

둘째, 무안공항의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이다. 이를 위해 활주로 연장과 KTX 2단계 구간의 무안공항 경유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셋째, 농업과 함께 전시킨벤션을 포함한 마이스(MICE) 산업을 전남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서부권의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의 수용능력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서남권 국제컨벤션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광주R&D 특구 인근의 장성 남면에 국제심혈관센터를 설립해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할 것을 제안한다.

우승희(전남도의회 의원)

개발 중심의 정책공약 보다는 일본의 농촌정책과 같은 사회와 사람에 투자하는 대선공약을 고민할 때라고 본다.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한 다양한 정책공약들이 제시됐으면 한다.

무안공항 활성화와 첨단 ICT 융복합 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첨단 ICT 융복합 단지 조성사업은 젊은 층 유입 대책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어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남을 에너지 신산업의 선도지역으로 개발해야 한다.

끝으로,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전남 서남권 중소 수리조선 특화단지 조성, 다도해 관광명소화 인프라 육성 및 마한 역사문화산업도시 조성을 전남의 대선공약으로 제안한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장)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신안군에 천일염 국가연구소 설립 및 신안의 특별자치군 승격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다. 신안의 섬 전체를 하나로 보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이아몬드 제도를 비롯해 보석같이 아름다운 섬으로만 구성된 신안군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KTX 2단계 구간의 무안공항 경유가 필수적이다. 본선이냐 지선이냐를 떠나 무안공항은 반드시 KTX 경유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호남은 정치 이야기를, 영남은 주로 경제를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최근 3년만에 떠오른 세월호의 한 컷 사진은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지역민들은 응집력이 있으나, 정치권은 세월호 문제를 비롯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일에 대해 소홀히 했다. 이 점에 대해 저를 비롯한 정치인 모두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고두갑(목포대 경제학과 교수)

지속가능한 개발과제 발굴이 우선이며, 제도적 공약도 마찬가지다.

전남의 첫 번째 정책공약으로 해양플랜트 산업을 포함한 조선산업 활성화 정책을 건의한다. 전남은 과거에 다이아몬드제도 개발과 F1 그랑프리 등 수천억 원을 투자한 사업들이 전면 취소된 전례들이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정책공약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전남의 유망산업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천일염 등의 연구 개발을 해야 한다. 신안 천일염은 목포대가 170억원을 투자해 천일염 연구에 매진한 결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랑드 소금과도 비교불가라는 결론이 내려질 만큼 품질이 우수하다.

셋째, 전남도가 지난 10여년간 투자했던 드론산업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심도있는 개발이 필요하다. 또 의료관광의 활성화 및 첨단농업 육성책 등의 3개분야의 공약을 제안한다. 모든 개발정책들은 전남의 교육, 자연환경 개발 및 보존과 병행돼야 한다.

19대 대선 전남 정책공약 토론회

분야별 전문가 9명 참석...전남여성프라자

전남도당은 지난달 23일 오후 남악 여성프라자 2층 회의실에서 이개호 도당 위원장(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과 당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대 대선 전남 정책 공약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의 ‘전남 대선 공약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지역 발



전과제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조 선임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동북아 해양수산·관광산업 국제선도지구 지정,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전남도에서 건의한 정책공약 60건에 대한 개괄적 소개를 했다.

이어 양승주 목포대 교수(행정학)의 진행으로 △고두갑 목포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미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우승희 도의원 △서삼석 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장 △송경환 순천대 농경제학과 교수 △장중익 여수산단 사무국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대선 앞두고 신규 입당, 탈당자 복당 러시

이승옥 여수 부시장 등 전직 관료 및 지방의원 입·복당식 가져

이승옥 전 여수시 부시장 등 최근 명예 퇴직을 한 전남지역 고위 공무원 및 무소속 기초의회 의장 등 7명이 최근 잇따라 입당하는 등 신규 입당 및 복당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은 이날 오전 남악 도당 회의실에서 이승옥 전 여수시 부시장(강진)과 박근조 전 도청 농정국장(담양) 등 전직 관료 6명과 강복수 보성군의회 의장 등 7명에 대한 입당 및 복당식을 갖고 정권교체를 위해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개호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을 앞두고 평생 공직에 몸담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우리 당에 큰 자산과 활력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신규 입당자는 △이승옥 전 여수부시장 △박근조 전 도 농정국장 △최성현 전 구례부군수 △양재승 전 해남부군수 △김학영 전 청와대 행정관 등 5명이다. 강복수 보성군의회 의장과 김삼렬 전 목



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복당서류를 제출했다.

이어 4선 지방의원인 최기동 목포시의원(67·사진)이 지난달 13일 도당에 복당했다. 최 의원은 “지역민들의 열망인 정권교체의 절대절명의 기회에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정통야당인 민주당에 복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7일에는 전경산·최일·박창수 전 목

포시의원 등 3명과 시민운동가 4명도 입·복당을 했으며, 올 들어 120여명이 도당에 복당신청을 했다.

오병현 도당 사무처장은 “호남권 당 지지율이 50%대에 육박할만큼 최근 정당 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 신규 입당자 뿐 아니라 탈당을 했다가 복당을 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공영민 호남향우회 상임부회장
국민의당 탈당 민주당 입당

“호남주도 정권교체 앞장”

공영민(63·사진) 호남향우회 상임부회장 겸 국민의당 정책위 부의장이 지난달 23일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우리 당에 입당했다.

전남도당은 이날 오후 남악 도당 회의실에서 이개호 위원장과 지역 당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 부회장과 최근 복당계를 제출한 최기동 목포시의원 등 2명에 대한 입·복당 환영식을 열었다.

고흥 출신의 공 부회장은 재정부 홍보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장, 제주발전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호남주도의 정권교체를 위한 영입 케이스로 입당하게 됐다.

이개호 도당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전남출신으로 중앙 부처와 제주도에서 오랜 공직 경험을 지닌 공 부회장과 목포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최기동 시의원의 입·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두 분이 정권교체와 국민대통합에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 부회장은 입당의 변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제주발전연구원장 등 30여년의 공직경험을 살려 지역 발전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호남주도의 정권교체에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당 청년·대학생위원회 출범... 2월28일

발대식 갖고 정권교체앞장다짐... 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도당은 지난 2월 28일 오후 남악 중소기업지원센터 2층 컨벤션홀에서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당 청년위/대학생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청년 및 대학생 당원과 함께 이개호 위원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특별강사로 초빙된 박영선(서울구로출)·박주민(은평갑) 의원, 신정훈(나주·화순) 김중현(목포)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추미애 대표와 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안희정·이재명·최성 후보 등은 영상을 통해 발대식을 축하했다.

김진 청년위원장과 임형률 대학생위원장(순천대총학생회장)은 이날 대회사들 통해 “청년과 대학생 당원의 뜨거운 결의로 정권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앞장서겠다”고 각각 다짐했다.

이개호 도당 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난



총선에서 큰 회초리를 들었던 지역민들이 오직 정권교체의 염원으로 우리 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 청년당원의 뜨거운 열정으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

혔다.

한편 박영선·박주민 의원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정권교체’, ‘청년당원의 역할과 자세’란 주제로 각각 특강을 실시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 당직자 선거인단 불법동원 혐의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국민의당 광주시 대선후보 경선에서 렌터카를 동원해 선거인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국민의당 광주시당 당직자 2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의당 광주시당 국장 A씨와 B씨는 지난달

광주지역에 실시한 대선 후보 경선에서 운전자 17명과 130여명의 경선선거인을 모집,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운전자들에게 수당 136만원, 차량임차료 85만원 등 총 221만원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호남권 경선 결과가 전국에 미치는 영향력과 위법임을 알면서도 행한 고의성 등을 고려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당 윤리심판원,

김희숙 여수시의원·이혜경 광양시의원 제명 처분

도당 윤리심판원(위원장 양 원, 목포대교수)은 지난 해 하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김희숙 여수시의원과 고리사채업을 해 물의를 일으킨 이혜경 광양시의원 등 2명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지난 2월 24일 양 원 원장과 박병모 부위원장, 김노금·김효선 위원, 전세정 도당 자문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

데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김 여수시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문을 통해 “김 의원이 지난해 6월 28일 여수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당 의장 후보 A씨로부터 지지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A씨에게 투표를 해 A씨가 당선되도록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당론을 무시하고 상대

당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명백한 해당행위로서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조(당의 강령이나 당론 위반,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 품위 훼손)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또 “이 광양시의원은 B씨에게 지난 2015년 7월 3천만원을 빌려주고 18개월간 최대 연 이율 48%의 이자 1,780만원을 받는 고리사채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양 심판원장은 “두 의원 모두 지역 당원들로부터 징계청원서가 접수돼 현장실사와 지역여론을 종합한 결과 불가피하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 광장 2017. 04. 14 (제18호)
발행인 | 이개호 **편집인** | 홍지영
발행처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무안 라-0002호 기타간행물 월간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74 403호
 TEL : 061-287-1219 FAX : 061-287-0415



문재인 후보 목포대 특강 문재인 후보는 지난 6일 목포대 70주년 기념관에서 '청년실업과 지역인재 육성'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진지한 질문과 답변 목포대 특강을 마친 뒤 문재인 후보가 대학생 토론자로부터 질문을 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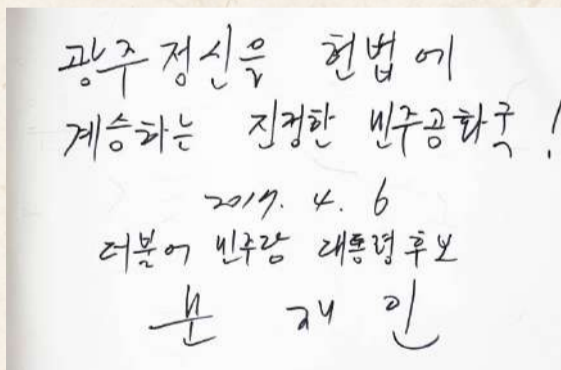
광양제철소 방문 문재인 후보는 6일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 광양제철소를 방문하고 근로자를 격려했다.



목포신항 방문 목포신항 세월호 육상 인양 작업 현장에서 해수부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듣는 문재인 후보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문재인 후보가 한 희생자 묘비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방명록 서명 문재인 후보가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방명록에 적었다.



핵심 당직자 간담회 문재인 후보가 지난 6일 전남도당 핵심 당직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선거인단 참여 홍보 도당 상무위원들이 대통령 후보경선 국민선거인단 참여를 홍보하고 있다.

도당, '용광로 선대위' 국민주권선대위 출범

이개호·김영록 상임 선대위원장, 신정훈·신문식·서갑원 등 공동 선대위원장 25명 인선
총괄 선대본부장에 김종현 목포지역위원장... 15일 광주에서 광주시당과 공동 출범식

도당은 13일 이개호 도당 위원장 주재로 전남 10개 지역위원장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전남도당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안을 확정, 발표하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이개호 도당 위원장은 이날 오후 남악도당 회의실에서 지역위원장 회의를 마치고 "진짜 정권교체를 위한 '용광로 선대위' 구성을 목표로 안희정 충남지사 와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이개호 도당 위원장과 김영록 전 의원(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장)이,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신정훈(나주·화순), 신문식(고흥보성장흥강진),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김재무(광양곡성구례), 송대수(여수갑) 지역위원장이, 안희정 캠프 출신인 서갑원 전 의원이 임명됐다.

또 성해석 전 광주전남재향군인회장, 김종철 전 도의회 의장, 정한수 열린교회 목사, 조성식 사드철폐 및 성지수호원불교대책위 광주전남 상임대표, 이형선 도

여성단체협의회장, 조일근 국민통합위 부위원장, 정진우 전 사무부총장, 고석규 전 목포대총장, 정기현 전 서울대의대 연구교수, 오하근 18대 대선 시민캠프공동위원장, 이상석 도의회 부의장, 이재명 캠프 출신의 최병상 6월항쟁기념사업회 대표, 김성인 참여자치 21 대표, 양만열·백정석 비전한반도포럼 공동대표, 김형덕 공정포럼 대표, 김남동 세계로병원 행정부위원장 등 모두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인터뷰

강 형 구 순천시의원 당선자

“지역의 심부름꾼,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5대 순천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고향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천 나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강형구 후보(54)는 “농어촌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 후보는 순천대 대학원에서 토목공학 석사학위를 받은 토목분야의 전문가로 순천지역 도시계획 전문가로 많은 활동을 해왔다. 또한 지난 2006년 왕조1, 2동 시의원에 당선돼 펼친 의정활동은 그가 배워왔던 전문지식을 활용해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이제 태어나고 자란 고향 낙안과 별량, 외서, 송광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농촌을 바꾸고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낙안중과 순천공고를 거쳐 순천대 대학원에서 토목공학과 석사를 취득했다.

도당, 각 시·군에

대선 선거사무소 개소

전남도당은 지난달 20일 목포지역위원회를 시작으로 10개 지역위원회 22개 시·군별로 제19대 대통령선거 정당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일제히 대선 선거지원 업무를 시작했다.

목포지역위(위원장 김종현)는 3월 20일 목포역 앞 원광한의원 3층에서 목포시 정당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김종현 지역위원장과 이춘용 도당 노인위원장(김대중정신계승회장), 최기동·김휴환 목포시의원과 김대중정신계승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목포에서부터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위원장 신문식)도 지난 5일 사순문 도당 부위원장, 김문호 연락소장, 조재환·김현복 도당 특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군 정당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어 보성과 강진을 비롯한 다른 시군에서도 일제히 정당선거사무소를 개설하고 대선승리를 위한 총력 지원체제 구축에 나섰다.

중앙당·도당, 4·12 재·보선 총력 지원

양향자 최고위원,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이개호 도당 위원장 지원 유세

양향자 최고위원(광주서구을 지역위원장)과 이개호 도당 위원장이 해남과 여수·순천 등 3곳에서 치러지는 4·12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이개호 도당 위원장은 10일 여수 서교동 로터리 및 교동시장 입구 등 7곳에서 여수 나선거구 김승호 시의원 후보(53·전 국동주민자치위원장) 지원유세를 펼쳤다.

이 위원장은 “5월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와 함께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오후에는 해남으로 이동, 삼산면 대흥사 상가와 마을회관 등을 돌며 유권자들을 만나 해남2선거구 양재승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전날 여수를 방문해 당 후보를 지원했다.

양 최고위원은 “김승호 후보를 당선시켜 5월 9일 대선에서 호남에서의 압도적 승리를 견인, 민주당이 정권교체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또 강형구 순천나선거구 보궐선거 후보(54·전 순천시의원), 양재승 해남2선거구 도의원 후보(59·전 해남부군수)의 선거구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돌며 지지를 당부했다.



도당, 13일 박병동 전 여수경찰서장 입당 환영식

성해석 전 광주전남재향군인회장 등 4명은 복당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3일 오후 도당 회의실에서 성해석 전 광주전남재

향군인회장(여수)과 박병동 전 여수경찰서장(장흥) 등 전·현직 공직자와 지방의

원 등 5명에 대한 입·복당 환영식을 개최했다.

입·복당식에는 이개호 도당 위원장과 김영록 전 의원(해남·완도·진도지역위원장), 조충훈 순천시장(순천지역위원장 직대) 등 전남 10개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당직자, 당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개호 도당 위원장은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진짜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신규 입당한 박병동 전 서장(민주포럼 운영위원, 문재인 후보 안보정보특보)은 “부패 기득권층과 국정농단 공범 구 새누리당 세력의 이른바 '반문정서'에 기댄 표로는 새로운 나라 건설은 불가능하다. 진짜 정권교체를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정균환 주도, 한광옥이 실질적 후견자 역할

“중도개혁포럼 가입 앓고는 아무 것도 못해”...58명 의원 가입

주축 세력은 박광태·박양수 등 야당 시절 당료 출신들로 포진

결국 한광옥 전 대표 구도가 짜여 있었음에도 동교동 구파가 굳이 한화갑 전 위원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한 것은 한광옥 전 대표체제에 대한 모양 갖추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일찌감치 이번 대표인선에 대권주자를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워두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한광옥 전 대표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동교동 신·구파는 결속을 다진다는 명분으로 몇 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애초부터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셈이었다.

동교동 신·구파는 현 상태에서는 재결속이 불가능해 보였다. 이들은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확연히 달랐다. 구파는 2000년 최고위원 경선 이후 이인제 전 최고위원 지지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9월 7일 이인제 초청 만찬에는 26명의 의원이 모였는데 동교동계의 이훈평, 조재환 전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들은 사실상 이인제 계보 활동을 시작한 셈이었다.

반면 신파는 한화갑 전 위원의 직접 출마로 동교동계의 단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 전 위원이 대선 경선에서 최소한 2~3위를 차지, 향후 정국에서 호남세력의 구심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들은 김 전 대통령의 내락까지 받았으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한 전 위원의 측근은 “지난 봄부터 사실상 대통령의 OK 사인을 받았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은 여의도에 35평짜리 사무실을 냈고 가까운 의원들에게 지지협조를 구하고 있었다. 더구나 한 전 위원은 이인제 전 위원에 대한 거부감을 수차례 표시, 구파와 메울 수 없는 골을 형성하고 있었다.

물론 김 전 대통령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현한다면 신·구파 모두 김 전 대통령의 뜻을 따를 것으로 보였다. 그렇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랬듯 김 전 대통령도 끝내 특정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편들기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공정한 경선을 해치기 때문이다. 당시의 판도대로였다면 동교동 구파의 지원을 받았던 이인제 전 위원과 이에 맞서는 노무현 전 상임고문, 김중권, 한화갑, 김근태 전 최고위원 등이 연대하거나 각개약진하는 1강 4중의 경선구도를 예상할 수 있었다. 이는 결국 신·구파가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2002년 경선 때까지 별도의 길을 가는 것이었다.

그 것만으로도 동교동계는 공언과 달리 이미 상·도동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셈이었다.

대선 경선에서 단결하지 못하고 사분오열되면 이후에도 하나의 대오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상·도동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이었다. 상·도동계는 이회창 지지파, 이인제 지지파, 김덕룡 계열 등 다양하게 나뉘어 제 갈 길을 갔다. 권 전 위원은 자서전에서 동교동과 상·도동을 이렇게 비교했다.

“역대 군사정권의 탄압 강도에서나 탄압에 반발하는 투쟁 강도에서나 동교동은 상·도동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생존의 문제를 두고 고심했다면, 상·도동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방법의 문제를 두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그저 두 계파를 단순 비교하여 거기서 도출되는 결론만 가지고 알가알부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권 전위원의 분석대로만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동교동계 역학관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구파가 한화갑 전 위원의 공백을 한광옥 전대표의



새정치국민회의 시절 동교동계 신·구파 소속 의원들이 어깨동무를 한 채 결속을 다짐하는 모습



정균환 전 의원, 박광태 전 광주시장, 이상수 전 의원



청와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당선자 신분으로 만난 노무현 전 대통령 <고려대 현대정치연구소 제공>



한광옥 전 대표와 박 전 수석은 모두 1980년대 중반에 DJ캠프에 합류했다.

그렇지만 이들은 당시 동교동 구파보다 대통령과 더욱 가까운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이들은 신·구파와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나름의 입지를 구축해왔다.

세력으로 메우려 한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신·구파의 대립 속에서 한광옥 전 대표와 박지원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었다.

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동교동계는 아니었다. 한광옥 전 대표와 박 전 수석은 모두 1980년대 중반에 DJ캠프에 합류했다. 그렇지만 이들은 당시 동교동 구파보다 대통령과 더욱 가까운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이들은 신·구파와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나름의 입지를 구축해왔다. 정권출범 초 신파가 득세할 때는 신파와 가까웠고 최근 구파가 힘을 얻으면서는 구파에 가까워진 것으로 해석됐다. 2000년 말 이후 2001년 당정개편 과정에서는 완전

히 구파의 입장에 섰던 것으로 분석됐다. 심지어 이 두 사람이 구파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한광옥 전 대표는 동교동 구파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했지만 끊임없이 독자적으로 세력을 확장해왔다. 일부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가까운 의원들을 공판으로 초청하는 등 당내 정치만 해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광옥 전 대표는 정균환 전 의원이 주도했던 중도개혁포럼의 실질적 후견자로 평가받고 있었다. 2001년 9월 1일 발족한 중도개혁포럼에는 58명의 의원이 가입해 있었다. 포럼은 대권주자에게 줄서지 말고 당의 중심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당의 미래에 불안감을 갖고 있던 의원들이 ‘중도개혁’이라는 말과 정균환 전 특보 단장에 대한 인간적 신뢰를 기반으로 대거 가입한 것으로 해석됐다. 주축세력은 박광태, 박양수 전 의원 등 야당 시절 당료 출신이 많았다. 이는 동교동 핵심이 가신그룹인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한 전 대표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중도개혁포럼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었다. 한 전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명섭(2013년 작고) 전 의원과 정책위의장에 발탁된 강현욱 전 의원이 모두 포럼 소속이었다. 유임된 이상수 전 총무와 당 4역 중 한 명인 지방자치위원장에 발탁된 김성순 전 의원도 포럼에 가입했다. 당시 한 재선의원은 “중도개혁포럼이 당내 최대계보가 된 것 같다”면서 “여기에 가입하지 앓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많다”고 말했다.

성명

전두환의 5·18 발포명령 ‘발뺨’은 헌법질서 유린행위

‘광주학살의 수괴’ 전두환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양민에 대한 의도적인 살상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발포명령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자신을 ‘씻김극의 제물’로 표현하며 “나에게 가해진 모든 악담과 저주는 주로 광주사태에서 기인한다”고 강변했다.

참으로 황당한 궤변이자 국민을 ‘우민(愚民)’으로 여기는 독재자의 망발이다. 그의 부인 이순자씨도 최근 발간한 ‘당신은 외롭지 않다’는 제목의 회고록에서 자신들은 “5·18의 억울한 희생자”라고 강변했다. 5·18 영령들과 광주시민에게 죽기 전까지 참회하고 용서를 구해도 부족할 판이다. 그럼에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시종일관 ‘광주사태’로 폄하하고, 역사적 진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부창부수의 태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

전씨는 이미 대법원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은 내란의 수괴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확정판결을 통해 5·18 당시 발포명령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대법원은 계엄군의 자위권 행사 및 시민피해와 관련, “사격을 전제하지 않고는 수행할 수 없는 성

질의 것... 발포명령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전씨가 대법원 판결은 물론 5·18특별법으로 규정한 5·18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고 발포명령 책임을 발뺨한 것은 법치주의와 헌법질서를 유린한 행위이다. 12·12 내란에 이어 80년 광주의 봄을 공수부대를 동원해 총칼로 짓밟은 세력은 전씨를 수괴로 한 신군부 집단이다.

전씨가 회고록을 통해 역사를 부정한 것은 특별사면으로 면죄부를 준데다 제대로 된 적폐청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19대 대선의 시대정신은 적폐청산이 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은 사·도민과 함께 전두환씨의 역사 부정 망언을 규탄하며, 5·18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발포책임자 규명, 헬기난사 등의 학살행위 주모자 등의 미완의 진실규명에 나설 것임을 다짐한다.

2017. 4. 4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논평
성명

국민의당 김철주 군수 ‘군정농단’ 엄정수사를 촉구한다

김철주 무안군수의 선거캠프 관계자와 친 형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무안군청에 대해 검찰이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군수의 측근과 공무원 등이 개인 비리로 줄줄이 구속 또는 구속될 위기에 빠지면서 무안군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가히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의 축소판’이라 할 만 하다. 사법당국의 엄정수사와 함께 소속 정당인 국민의당의 ‘읍참마속’을 촉구한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3일 ‘지적업무 비리’와 관련, 무안군청 종합민원실과 6급 공무원 A모씨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A씨는 특정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월 29일에는 연안 정비 사업 비리와 관련, 군청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김 군수의 친형을 지난달 31일 제3차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생태갯벌 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 김 군수의 친구이자 캠프 관련자인 B씨가 업체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김 군수는 측근들의 군정농단 와중에서도 일부 군의원들과 함께 탈당을 하고 당적을 옮기는 ‘철새정치’를 일삼았다. 풀뿌리 단체장이 군정농단을 방치하는 사이 무안군은 지난해말 청렴도 조사 결과 전국 82개 군 중 79위, 전남 17개 군 중 꼴찌 군으로 전락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군정농단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김 군수는 친형과 친구, 소속 공무원 등이 잇따라 비리로 사법처리되고 있는데 대해 군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군수직을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17. 2. 6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경선 선거인 동원 의혹 해명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결국 또 구태정치의 반복이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3일 국민의당 광주 전남 대선 경선과정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국민의당 관계자 두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렌터카 17대를 동원해 경선선거인단 130여 명을 투표장으로 실어 나르고, 운전자들에게 수당 136만원과 차량 임차료 85만원 등 총 221만원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의 요구가 그 어느 곳 보다 높은 호남에서 선거인단 동원 의혹이 발생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호남당을 자처하는 국민의당이 정의로운 땅 호남을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든다. 당대표까지 나서 경선이 연일 ‘대박’을 치고 있다며 설레발치기에 바빴던 국민의당에게 정중하게 요청한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한 정부를 출범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선거이다. 경선 흥행에 목을 맨 국민의당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 또한 청산해야 할 적폐임을 깨닫기 바란다.

국민의당은 경선 선거인단 동원 적발 사건에 대한 점의 의혹 없이 해명하고 관련자를 공개하라. 그리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이것만이 ‘적폐세력’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7. 4. 4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이 형 석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위원장이 개 호

‘개헌 국민투표·대선 동시 실시’ 합의 호남민 모독 행위

국민의당이 지난 15일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옛 여권세력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 및 대선 동시 실시’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는 발상으로서 호남의 지역정서를 철저히 배신하는 행위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박근혜 탄핵을 초래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자 종범이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동책임이 있는 옛 여권세력과 함께 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반독재 투쟁에 앞장서온 호남민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당 합의’는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와 국회 개헌 특위 간사 김동철 의원 등 국민의당 개헌파 의원들의 주도로 이뤄졌다. 공론화 과정은 물론 당 대표와의 논의도 생략됐다.

개헌을 명분으로 박근혜 부역세력과 손을 잡겠다는 것은 호남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 금이라도 적폐청산의 대상인 구 여권세력과의 야합을 중단하고 지역민에게 공개 사과하길 바란다.

2017. 3. 19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전남도당 3월 재정운영 보고

수입, 당비·보조금 외 지원금 등 5억331만7,306원

지출, 기본경비·정치활동비 등 1억4,221만5,290원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의 지난 3월말 현재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4억3,292만8,345원과 당비 수입 7,038만8,961원 등 모두 5억0,331만7,306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도당은 이 가운데 조직활동비 5,891만2,850원, 보조금 외 하급당부 지원금 4,130만

원, 인건비와 사무소 설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3,544만700원 등 모두 1억4,221만5,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말 현재 지출 잔액은 3억6,110만2,016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재정 운영내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도당은 당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더욱 투명하고 알찬 재정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김현진 차장 ☎061-287-1219

● 수입·지출 총괄표

(수입·지출기간 : 2017.03.01 ~ 03.31)

구분	과 목	계	보조금외	경상보조금	
수	전 년 도 이 월	432,928,345	432,928,345	98,369,986	
	당 비	70,388,961	70,388,961	0	
	기탁금(중앙당에한함)	0	0	0	
	후원회 기부금	0	0	0	
	보조금(중앙당에한함)	0	0	0	
	차 입 금	0	0	0	
	기관지발행사업수입	0	0	0	
	지 원 금	보조금	상급당부	0	0
			하급당부	0	0
		계	0	0	
		보조금외	상급당부	0	0
하급당부	0		0		
계	0	0			
소 계	0	0			
그 밖 의 수 입	0	0			
합 계	503,317,305	503,317,305	0		
지	선 거 비 용	0	0	0	
	기본경비	인 건 비	30,257,820	30,257,820	0
		사무소 설치 운영비	5,182,880	5,182,880	0
		정 책 개 발 비	6,556,000	6,556,000	0
		조 직 활 동 비	58,912,850	58,912,850	0
		여 성 정 치 발전비	0	0	
	그 밖 의 경 비	5,740	5,740		
	지 원 금	보조금	상급당부	0	0
			하급당부	0	0
		계	0	0	
		보조금외	상급당부	0	0
			하급당부	41,300,000	41,300,000
		계	41,300,000	41,300,000	
	소 계	41,300,000	41,300,000		
	합 계	142,215,290	142,215,290	0	
	잔 액	361,102,016	361,102,016	0	

이개호 도당 위원장, 목포신항 방문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위로



이개호 도당 위원장(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3일 오후 세월호 선체가 접안된 목포신항을 방문, 미수습자 가족 및 일반 유가족들을 차례로 만나 위로하고 분향소 설치 문제점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날 미수습자 가족 컨테이너 숙소에서 가진 면담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민주당 간사인 이 위원장은 “남은 9명을 찾는 게 가장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수습자 가족들은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및 사후 수습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앞장서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을 찾는 작업 최우선적 실시, 사고원인을 밝혀줄 증거 보존과 선체 훼손 최소화, 신항 펜스 외부의 분향소 설치 보류 등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미수습자인 조은화 양의 어머니 이금희씨와 허다운 양의 어머니 박은미씨 등은 “아직 아이들이 선체 안에 있는데 펜스 밖에서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컨테이너 부두 밖에 설치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텐트 앞에서 유가족들을 만난 이 위원장은 유류품의 체계적인 보존, 세면장 설치 등의 건의사항을 듣고 해수부와 목포시 등에 신속한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앞서 신항 내 해양수산부 현장수습본부에서 이철조 본부장 등으로부터 현재 진행중인 펄 제거작업과 세월호 육상거치 작업 진행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미수습자를 찾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만남이 있는 신비의 바다로!!

제39회 진도 신비의바닷길 축제

The 39th Jindo-Miracle Sea Road Festival

2017. 4. 26.(수) ~ 4. 29.(토) 4일간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

제 6회 진도개의 날 기념

2017 대한민국 진도개 페스티벌

5. 6.(토) ~ 5. 7.(일)
진도개 테마파크 일원

또 하나의 가족, 진도개는 내친구!

주최 Jindo 진도군 주관 (사)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주관] Jindo 진도군 [후원] 진도개명견화사업단



숲속의 전남 숲속의 당신

투명한 햇살 스며드는 남도의 어느 숲
아침산책 함께 걷는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나만의 숲, 나만의 시간
숲속의 전남, 새로운 당신이 보입니다

숲속의 전남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송림산



익불산



해송숲

